

더비킹으로 얻는 이익을

포기하지 맙시다

홍 성 택

(대한사료 기획부)

「여기 시골에 한 나뭇꾼이 있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 시장에 내어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해가 지기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나무를 베어야겠다” 하며 열심히 일을 한다. 나무를 베는 사람에게는 이말이 지상과제이며 부지런하게 나무를 벨수록 그는 돈을 많이 벌 것이며 짧감인 이 나무중 어느 하나가 더 길거나 짧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계가가 이 중요한 사양 관리부문을 이런식의 태도로 임하였다면 그는 그에게 돌아올 이익을 뚝 잘라버린 것이다. 적절한 더비킹은 철저한 기술의 숙달이 요구되며 기대와 인내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며 실시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부리는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사료를 섭취하는 유일한 도구이며 싸울때는 주요한 무기가 되기도 하며 사료통을 파헤쳐 사료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도 이것이고, 계란을 쪼아내고 서로의 깃털을 쪼아대는 악습도 이것때문이다. 양계가에게는 이것이 불리한 때가 많아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허다하다. 하므로 사료섭취에 지장이 없다면 부리를 적절히 잘라주는 것이 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더비킹(부리자르기)은 다소 잔인한 감이 있지만 서로 쪼이게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좋으며 카니발리즘 식우증에 의한 손실을 아주 낮출 수 있게 한다. 더비킹은 카니발리즘의 원인을 뿌리채 뽑는 것이 아니고 완화시키는 일이다. 더비킹을 한다해서 쪼는 버릇은 중지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쪼는데서 오는 피해를 경감시키고 그로 인한 손실을 줄여 주는데 있다.

카니발리즘의 원인

카니발리즘을 일으키는 요소는 많다. 즉 밀사 불완전한 사료배합, 불편한 환경(고온, 실내가 너무 밝을때, 바닥이 습하고 불결 할 때), 시설의 부족(산란상, 사료통, 물통, 뿔등의 부족),

환기불량, 권태나 실증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계군의 안락과 평화를 저해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이같은 악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제 원인들을 제거해 주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즉 적당한 면적에 수용, 적절한 급이기 급수기 산란상 등의 제공, 적합한 환기 장치 설유질 및 무기물을 고려한 사료의 급이, 환경의 개선 등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카니발리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일이다. 병아리에 상처가 났을때 특히 가끔 있는 탈홍의 증상으로 부터 이 악력은 시작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해결 방안

더비킹은 카니발리즘의 실제적인 해결 방법이 다. 대부분의 양계가들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난관에 부딪치며 만일 이를 행하여 준다면 카니발리즘의 예방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 즉 ① 사료의 손실을 방지한다. ② 알을 깨먹는 버릇, 알을 깨는 버릇을 방지한다. ③ 계군이 대소의 차

가 없이 균일하게 자란다.
(PECK ORDER방지), ④ 두마
리 이상의 닭을 동일케이지 내
에 수용함이 수월하다. ⑤ 집
란 작업시 닭에게 쪼일 염려가
없다.

디비킹의 시기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디비
킹은 할 수 있지만 대개 제일
하기 쉽고 닭에게도 좋은 시기
는 4~6 주령, 10~12주령, 산
란계사로 이동하기 전 등이다.

산란개시 후에도 할 수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초
산 전에 하는 것이 산란에 지장이 없어 좋다.
4주령쯤 되면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으나 너무
빠르면 성계가 된 후 다시 한번 수정하여 줄 필
요가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10~12주령이 하기
용이하고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본다. 외국에서
는 근래 부화 직후의 디비킹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통상 양계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화장으로
부터 병아리를 구입할 때 이미 디비킹된 것을
공급받는 것이다. 이때 병아리는 부화후 2, 3일
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웅감별 직후 바로 실
시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단 디비킹을
하면 이후 48시간동안은 물과 사료의 섭취량이
급격히 떨어진다. 병아리는 부화후 3일령시 까
지 영양 공급을 체내 난황에 주로 의지하며 그
후 먹이를 조금씩 먹기 시작한다. 난황은 3일이
되면 완전히 소모된다. 이 중요한 때 디비킹하였
다면 정상적인 사료와 물의 섭취가 급격히 줄어
지며 이는 곧 스트레스로 어린 병아리에게 가해
진다. 부화 후 바로 1일령시 하였다면 병아리
는 먹이와 물을 먹을 때 까지 그들 난황의 영양
을 공급받으며 2일간의 회복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디비킹한 병아리를
서비스하는 부화장이 있게 된다면 양계가의 수
고를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잘된 부리자르기 모양>



<잘못된 부리자르기 모양>

유의 사항

디비킹은 양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전기용 디비커(부리 절단기)를 쓰면 아주 효과
적이다. 이것은 자르면서 동시에 지져주기 때문
에 출혈이 방지된다. 이 수술을 시행하기 전 다
음의 주의사항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① 더운 여름에는 1일중 가장 서늘한 시간을
택하여 해야된다. 기온이 80°F 이상 오르면 어
떤 닭들은 수술시 심히 출혈한다. 이 때는 완전
히 지져주도록 한다. ② 닭을 빨리 그리고 쉽게
다룰 수 있게끔 하고 시작하여야 된다. 혼자 하
려고 들지말고 반드시 보조자의 도움을 받도록
함이 좋다. ③ 사료와 물은 아주 쉽게 먹을 수
있게끔 한다. 가능한한 1주~10일간은 가루먹이
를 주고 또 통에 충분히 넣어 주어 부리가 사료
통이나 물통의 밑바닥에 부딪치어 충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 기간에는 펠펠 먹이도 주
지말아야 된다. ④ 병아리의 경우에는 1" 두께의
브로크나 나무통 위에 급수기를 놓아 물을 먹을
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어 부리에서 물을 흘
려 버리지 않게끔 해야된다. 또 물의 온도는 육
추사의 온도와 같아야 한다. ⑤ 새로운 계사로
이동시는 디비킹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닭이든지 새로운 환경에 당황하여 처음 먹이와 물을 찾는데 곤란을 느낀다. 꼭 수술을 하려고 하면 어분의 사료통과 물통을 넣어주어야 한다. ⑥ 닭의 건강이 좋지않거나 질병이 의심될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 ⑦ 물을 먹기 좋게 하여 줌이 중요하다. 부리로 두드려야 되는 급수기는 사용치 않음이 좋다. 야간에 디비킹 계획을 세웠다면 수술시 짙은 청색의 전구를 사용함이 좋다. 닭은 이 빛에 잘 볼 수 없어 요동을 하지 않으므로 수술자는 아주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술하기 수일전 진정제를 먹일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취급중 닭들을 안정시키고 특히 여름철에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어느시기에 하든 디비킹은 닭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디비킹 자체보다도 급격히 감소된 사료와 물의 섭취량에 기인한다. 수술후 48시간동안의 음수량은 75%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위에서 설명한 유의사항은 스트레스를 가능한 줄이는 방법이 되며 만일 닭이 약해졌을 때는 곧 비타민제나 항생물질을 투여해 줌이 좋다.

얼마만큼 자를 것인가?

디비킹은 여러가지 각도로 시행할 수 있다. 부리 끝만을 자를 수도 있다. 산란중인 닭에게 이 방법은 닭을 당황시킴이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적합하다. 단지 윗부리와 아랫부리의 끝을 지질 수도 있으며 윗 부리만을 자를 수도 있다. 가장 만족스럽고 여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은 윗부리와 아랫부리의 양쪽을 전부 자르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적절히 쓰면 부리의 성장을 방지할 수 있다. 우선 보조자가 한 손으로는 닭의 다리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잡아서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으로 턱 부분을 누르게 되면 입이 벌어진다. 이때 수술자는 붉게 날이 달구어진 디비커로 윗부리의 끝서부터 코구멍까지 길이의 2/3부분을 자르게 되는데 잘린 부분이 뒷쪽으로 경사지도록 닭의 머리를 숙여 주어야 된

협성가축약품공사

가축예방약 치료제 사료첨가제

소독약 기타 일체 총판

서울 청량리역전 오스카극장앞

가금진료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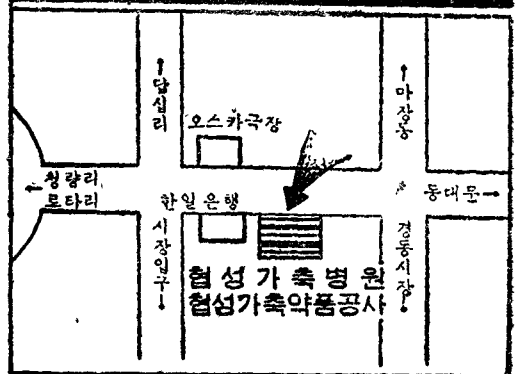
협성가축병원

서울 청량리역전 오스카극장 앞

(02) 7779

(06) 9231

92 7779 96 9231



*** 디 비 킹 ***

다. 즉 윗부리의 윗부분이 아래 부분보다 3mm 정도 길게 남겨끔 잘라야 된다. 자른 후에는 끝부분이 둥글게 되고 출혈이 중지될 때까지 부리를 굴러가며 지지준다. 아랫부리는 육질이 끝나는 부분을 직각으로 바로 자른다. 자른 뒤에는 역시 지지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상처 부위가 아물게 되고 부리의 표피끝이 둥글게 된다.

.....
도구를 수시 점검 하라
.....

날이 무거거나 형이 바로되지 않은 디비커는 부리를 망쳐버리게 된다.

유연한 육질의 혹이 부리에 생기는 원인이 되며 이렇게 되면 부리를 어느 부분에 벨때 아프게 되어 사료 섭취를 감소시킨다. 적절히 디비킹되면 부리의 끝은 둥글게 되고 완전 치유후에는 부리표면에 육질이 아닌 각질의 표피가 형성된다. 또 부리가 깨끗이 절단이 되지 않고 그 일부분이 입천정의 조직일부와 같이 남아 달랑 매달리게 되며 이를 다시 제거하려고 들면 입천정의 조각이 떨어져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상처를 치료키 어렵게 되어 결국 닭을 잃게 되고 만다.

.....
조경 조질의 효과
.....

근래 외국에서는 디비킹을 하지 않고 대신 조명을 조절함으로써 카니발리즘을 억제하는 빛의 효과를 연구하고 있으나 이 방면에서는 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육추사의 천정에다

적색의 플라스틱판을 수개소 끼어 놓으면 약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필요할때 적절히 디비킹을 하여주는 것이다.

.....
요 약
.....

조금이라도 쪼는 버릇이 생기면 반드시 디비킹을 하라.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이니 디비킹은 카니발리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많은 이익을 줄것이다. 사료의 낭비는 50% 이상 감소된다. 디비킹을 시작하기전 또는 하는 도중에 기구가 제대로 되어있나 반드시 점검하라. 잘못 수술함으로써 의외로 이익을 경감시키는 수가 많다. 추운 날 또는 1일중 가장 서늘한 때를 택하여 하고 수술후는 충분한 사료통 및 물통을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계사로 이동을 요할 때 중요하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비킹후 절대 수용환경을 바꾸지 말라. 닭들은 필요로 하는 먹이와 물을 발견치 못할 수가 있다. 수술 후 2~3주째 다시 부리가 자라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라 산란계사로 이동할 때 일일히 점검하여 혹시 빼놓은 것,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 아랫 부리가 더 길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 등이 있으면 다시 교정하라.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 산란사에서 많은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올바른 디비킹의 효과는 투여된 비용과 노동력 몇배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여주는 것이다.

*** 양계인의 영원한 친구 ***

월 간 양 계

1년분 : 1,500원
반년분 : 800원

구독하실 분은 상기 금액을 소액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 가 급 협 회
서울 중구 초동 18-11
TEL 26-0321 · 4692